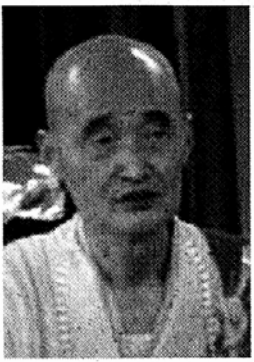


“김지장상 건립 동참 바라”

한국 방문한 구화산 방장 인덕스님

“지장보살 교각스님의 노천 동상은 구화산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공사로 중·한 두 나라 불교계가 함께 이루어야 할 대작불사입니다. 한국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상조성을 조속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산을 발전시키는 것은 일생의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해 9월 착공한 지장보살 성지 조성 불사의 중심은 연화좌 23m, 불상 높이 76m의 지장보살상. 인근에 대웅보전 등 30여 동의 전각과 부대시설을 갖춰 2002년 9월 6일 낙성식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관음정진하며 통일 발원”

200km 도보대장정 주관 도원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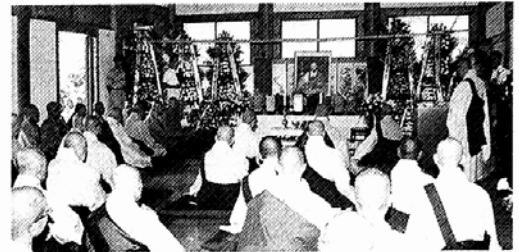
“회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헤매는 구도의 길을 떠나는 것과 같이 이번 걸기대장정 동참자들도 무더운 여름날씨 속에 한발자국 한발자국 걷는 자기 고행을 통해 진정한 불자로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 행사 목적입니다.”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서울 우면동 관문사에서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적멸보궁까지 200km 걸기대장정 행사를 주관하는 천태종 총무원 교육부장 도원스님은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가 마침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만남이후 열리는 만큼 “걸기대장정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한반도 통일을 진심으로



기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걸기대장정에는 금강불교대학 재학생 전원과 금강대 총동문회 회원 등 300여명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도보정진은 4일 오전 6시 관문사에서 출발해 곤지암, 여주, 원주, 제천, 단양 등을 거쳐 9일 오후 2시 구인사 적멸보궁에서 회향한다. “도보행진은 상행삼매(常行三昧)의 실천법으로써 천태지관의 사총삼매(四種三昧)중의 하나인 구도행각”이라고 소개한 도원스님은 “품으로는 오로지 길을 걸으며 입으로는 끊임없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마음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해야 합니다”고 말

이경숙 기자



경봉 스님 열반 18주기 법회

통도사 극락암(주지 명정)은 28일 경봉 대종사 열반 18주기 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 주지 신허 스님, 석정 스님, 환산 스님을 비롯한 문도회 스님들과 신도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스님의 뜻을 기리는 경봉장학회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



전물장병·희생영령 합동 천도제

육군 5군단 호국금강사(주지법사 이종인)는 6월 25일 6.25 50주년 기념 제17회 전물장병 및 희생영령합동 위령 천도대재를 봉행했다. 봉행사에서 밀운스님(봉선사 주지)은 “한때 적으로 싸웠지만 한민족이기에 진실한 마음으로 왕생극락을 기원하자”고 말했다. 영가천도식, 위령대제, 탑돌이로 오전행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도피안사, 제2방굴, 월정리 전망대, 노동당사 등으로 성지 및 전적지 순례를 했다.



동국대 교직원 하계수련회 실시

동국대 정각원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직지사에서 '2000년도 교직원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교직원 61명이 참여한 이번 수련회는 녹원스님(동국학원 이사장)의 법어, 법산스님(정각원장)의 강의를 비롯해 예불과 장군 그리고 참선실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동국대는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올바른 교직원 상'을 정립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예년과 달리 강도 높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은평노인복지관 창립 1주년 기념식

서울시립 은평노인복지관(관장 성운)은 6월 30일 복지관 강당에서 '개관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법성 관음사 주지, 원화 석가사 주지, 해인 신통사 주지 스님을 비롯해 강인석 국회의원, 이지형 은평구청장, 나영수 은평문화원장, 이미지 이대교수 등 내빈과 어르신 1000여명이 참석했다.



북한에 일기루 210톤 기증

월주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사업대표는 6월 29일 CJ39소싱 대회의실에서 대북지원을 위한 제13차 지원물품(일기루 210톤) 기증식을 개최했다.

미주 태권도 창우회 초청 행사

성공 재주 약천사 주지는 6월 30일 미주 태권도 창우회 한국방문단을 위한 '재주 문화의 밤' 행사를 약천사 전다광장에서 가졌다.

美 뉴욕대인 의료협약 체결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1일 미국 스

토니부록 뉴욕주립대를 방문, 2002년 개인 예정인 동국대 부속 일산병원과 뉴욕주립대 부속병원의 의료 협약을 체결했다.

홍금강회 지부장 간담회

해명 직각종 포항교구장은 6월 29일 포항시 북구 조성삼인당에서 개최된 홍금강회 지부장단 연석 간담회에 참석했다.

종명서 경승실 월례법회

교의 육담 역할을 했다. 부산불교 거사림회

“초발심자 길잡이 역할 최선”

부산불교 거사림회

김정도 새회장

“제방의 스님들의 교화와 불자님들의 마음을 모아 원융한 불교의 진리를 생활 속에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법회의 장을 계속 열겠습니다.” 27일 부산불교거사림회 창립 28주년 기념법회에서 12대 신임회장 김정도(62) 회장의 말이다. 생활불교를 표방하며 72년 창립된 부산불교거사림회는 28년 동안 636회의 법회를 주관해 오면서 불자를 길러내어 부산 불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제 부산 주요 신행단체의 단체장들이 되어 있기도 하다. 앞으로도 28년의 역사를 이어온 월 2회의 법회를 계속하겠다는 김 회장은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다”는 말로 포부를 대신했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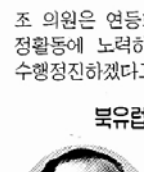


회정 직각종 총무부장은 6월 28일 서울 중앙경찰서 경승실 6월 월례법회에 참석, 설법했다.



중기 특별위원장에 임명

조한천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6월 26일자로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조 의원은 연동회 이사로 국정과 의정활동에 노력하는 불자상을 만들고 수행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북유럽 건축 답사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는 6월부터 16일까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로 해외건축 답사를 떠난다.



월드컵 디너쇼 개최

김홍국 축구사랑모임회장은 8일 오후 6시 힐튼호텔 컨벤션 홀에서 2002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김홍국 월드컵 디너쇼'를 개최한다.



북녘 불교유적 강연

윤범모 경인대 미술대 교수는 8일 오후 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리는 조계사 열린강연회에서 '북녘의 불교문화유적'을 주제로 강연한다.

미술대전 문인화 우수상

소현당 강정숙 한국화가는 제19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소나무를 그린 '高閣'로 문인화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티베트 불교교류 바람직”

경주엑스포 티베트공연 추진 신근호 원장

“티베트는 불교문화를 비롯해 민속학, 약재, 광물, 체육 등 연구·교류 분야가 무한한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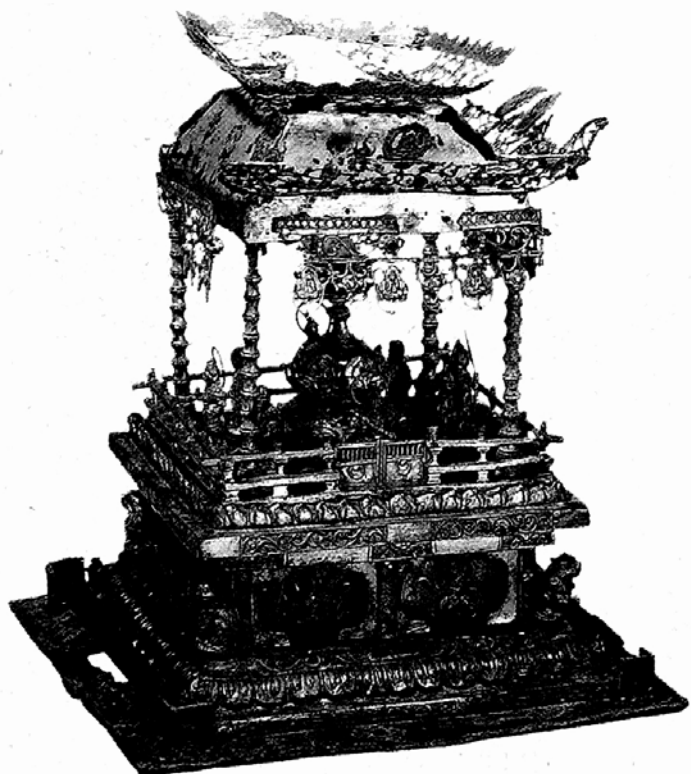
오는 9월 제2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때 티베트 전통가무단의 공연을 추진중인 한·티베트문화연구원 신근호 원장(56, 영남이공대 산업디자인과교수)은 중국의 티베트 개방정책에 대비해 장기적 안목에서 티베트와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공연이 성사되고 오는 11월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실현될 경우 올 가을에는 한차례 티베트 열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지난 95년 발족한 한·티베트 문화원은 96년 7월 중국 서장대학과 공동으로 장족문화예술연구소(藏族文化藝術研究所)를 중국 서장 자치구의 라사(Lhasa)에 개원했다. 이 연구소는 서장 자치정부가 인정한 티베트내 최초의 티베트학 연구소로 중국 신화사통신과 인민일보에도 보도된 바 있으며 지금까지 2편의 논문을 발간하고 '티베트 근자 발생연구' '한·티베트 단청 비교연구' 등 3편의 논문을 진행중에 있다.

98년 11월 사단법인으로 승격한 한·티베트문화연구원은 최근 서장대학과 대구대와 자매결연을 추

진, 성사단계에 와 있으며 대구시와 라사시의 자매결연도 추진하는 등 민간외교사절로서의 역할도 수행중이다. 이 연구원은 또 티베트어 교본을 발간하고 불교교양대학을 설립해 일반 시민들에게 티베트불교 및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티베트 3대 사원인 세라사원 주지스님의 속가제자가 될 정도로 티베트에 심취해 있는 신원장은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한 혜초스님의 행적을 본받던 우리나라 스님 3명이 1940년대에 티베트 사원에서 수행하다 문화혁명 시대에 쫓겨난후 사망한 비화를 소개하고 스님들의 행적을 조사하여 공덕비를 세워주고 싶다고 말했다. (053)651-8852, 011-826-1200 이윤호 기자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사리장엄구 특별전



경주 감은사 동삼층석탑 출토 금동전각형 사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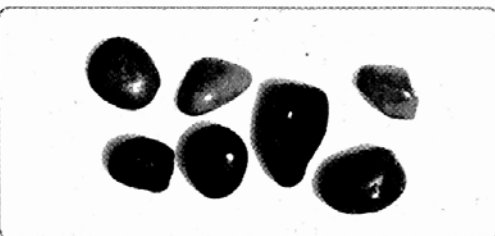
통도사성보박물관의 신축개관 1주년 기념특별전 『불사리신앙과 그 장엄』전이 많은 불자들과 관심있는 분들의 성원으로 지난 2일 개막 이래 연일 3,000여 명이 입장하는 등 성황을 이루어 지금까지 약 3만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사리장엄구는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불교예술품으로, 1996년 발견된 후 보존처리를 거쳐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감은사동탑 사리구를 비롯하여 전국 50여 기 불탑에서 출현한 국보·보물 등이 함께 공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율사께서 중국 당나라에서 모셔와 1,400년만에 처음 공개되는 부처님 진신사리도 친견할 수 있는 금생(今生)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은 모두 동참하시어 무량공덕을 쌓아 업장소멸하시기 바랍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梵河 합장



1,400여 년 전 자장율사께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 사리 친견 안내 ◆

- 전시기간 : 2000년 6월 2일 ~ 7월 31일까지
- 친견시간 : 매일 오전 8시 ~ 오후 7시(사리친견 기간 중 휴관 없음)
- 입장료 : 개인 3,000원 / 단체 2,000원
- 예약안내 : 전화 0523) 384-0010, 팩스 0523) 384-0030(담당자 : 이승현) (연락처 방문일시, 사찰이름, 예성인원, 인솔스님 명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찰이나 신도단체에서 미리 예약하시면 특별요금 1,000원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부산, 울산, 경주 등 가까운 지역에서 친견을 오실 때 30인 이상 단체일 경우 박물관 버스(45인승)를 운행해 드립니다.